

지구촌 아우르는 광주만의 콘텐츠를 찾아라

‘문화수도 광주’ 성공 프로젝트 <7>
(1부) 킬러 콘텐츠를 만들자
6 페스티벌 오! 광주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의 ‘투란도트’ (DIMF 조직위원회 제공)



‘페스티벌 오! 광주’의 타악그룹 일수 ‘인수화풍’

지난 1일 오후 대구 오페라 하우스. 뮤지컬 ‘투란도트’를 보기 위해 찾은 공연장은 막이 오르기 1시간 전부터 관객들로 붐볐다. 이들 가운데에는 ‘투란도트’를 관람하기 위해 멀리 일본과 중국에서 대구를 찾은 원정팬들도 많았다. 글로벌 공연축제로 자리잡은 대구국제뮤지컬 페스티벌(Daegu International Musical Festival·이하 DIMF)의 명성을 실감케 했다.

DIMF 공식초청작인 뮤지컬 ‘투란도트’(연출 유희성)는 동명의 푸치니의 오페라를 새롭게 해석한 작품이다. 우선 극중 배경은 중국이 아니라 가상의 물속나라 ‘오카케오 마레’. ‘메이드 인 대구’(Made In Daegu)의 창작뮤지컬을 강조하기 위한, 일종의 차별화된 장치다. 줄거리는 오페라 투란도트와 크게 다르지 않다. 어머니의 잔인한 죽음으로 차가운 심장을 가지게 된 얼음공주 ‘투란도트’와 투란도트의

페스티벌의 치밀한 준비가 있었다. 지난 2006년 대구시와 DIMF 사무국은 ‘한국의 브로드웨이’를 내걸고 제작단계부터 세계시장을 겨냥해 ‘투란도트’를 기획했다. 세계인이 가장 좋아하는 투란도트를 모티브로 삼은 것도 그 때문이다. 여기에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시장을 감안해 중국인들이 친근하게 느끼는 음악 스타일을 가미했다. 3년 간의 준비 끝에 지난해 첫선을 보인 ‘투란도트’는 DIMF의 대표브랜드로 자리잡았다. 올해 1월 ‘중국 동관뮤지컬 페스티벌’에 참가해 특별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지난 5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창작뮤지컬 육성 지원사업’에서 해외공연작에 선정돼 3억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DIMF는 대구 오페라 축제와 더불어 대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문화상품이다. 그간 DIMF를 거쳐간 작품중에는 대중성을 검증받아 지

의 전신인 광주국제공연예술제(이하 공연예술제)다. 공연예술제는 뮤지컬·무용·클래식·연극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른 축제 그 동안 예선과 운영의 난맥으로 주춤거리다 지난해 광주문화재단 발족과 함께 ‘페스티벌 오! 광주’로 간판을 바꿔달고 새롭게 출발했다.

하지만 6년이 지난 지금 두 축제의 위상은 사뭇 다르다. DIMF가 한국을 대표하는 뮤지컬 축제로 발돋움한 데 비해 ‘페스티벌 오! 광주’는 아직까지 이렇다할 만한 히트작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서다. 물론 DIMF의 10분의 1에 불과한 예산(1억 8천만원)으로 8편의 공연을 무대에 올린다 보니 국립발레단의 ‘백조의 호수’를 제외하면 임팩트가 있는 화제작이 부족했다. 게다가 초청작을 상당수가 무용장르에 편중돼 다양한 볼거리를 바라는 관객들의 기대엔 다소 미흡했다.

적은 예산에 화제작 부족하고 장르 무용 편중

공연장 등 인프라 확충에 정책 뒷받침 필요

사랑을 얻기 위해 목숨을 건 도전을 시도하는 왕자 ‘칼라프’, 그리고 왕자를 사랑하는 시녀 ‘류’가 오카케오 마레에서 펼쳐는 희생과 사랑을 그린 대서사시다.

무대는 웅장한 스케일과 귀에 착착 감기는 음악, 뛰어난 배우들의 역량이 어우러져 유명 기획사가 제작한 블록버스터 뮤지컬을 보는 듯 했다. 지방에서 만든 작품이라는 사실을 간과할 정도였다. 물론 연출가와 음악감독이 서울 출신이지만 출연진 30명 가운데 주인공 투란도트와 류 등 11명이 대구에서 활동하는 배우들이다.

무엇보다 올해 처음으로 홀로그램과 3D 영상 기술을 접목해 공연의 배경인 ‘오카케오 마레’를 좀 더 현실감 있고 입체감으로 표현해 관객들을 압도했다. 지난해 DIMF의 개막작이었던 ‘뉴 버전’에 대한 기대가 더해지면서 올해 ‘투란도트’ 유례없는 대박을 냈다. 지난 6월26일부터 7월1일까지 총 8차례 공연의 매회 객석 점유율은 90%를 기록했다. 오페라 하우스의 객석이 1500석임을 감안하면 1만 여 명이 다녀간 셈이다.

‘투란도트’의 성공에는 (사)대구국제뮤지컬

속적으로 무대에 오르는 작품들이 상당하다. 영화 ‘달콤, 살벌한 연인’을 각색한 뮤지컬 ‘마이 스캐어리 걸(My scary girl)’, ‘스페셜 레터’ ‘식구를 찾아서’ ‘모비딕’ 등이 좋은 예다. ‘마이 스캐어리 걸’과 ‘스페셜 레터’는 뉴욕 뮤지컬 페스티벌에 공식초청되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마이 스캐어리 걸’은 DIMF의 존재를 국내 외에 과시한 일등공신이다. 2008년 DIMF의 창작지원부문에 선정돼 6천만원으로 제작됐지만 짜임새 있는 스토리와 완성도 높은 무대로 대구는 물론 서울 대학에서 열린 원정공연에서도 구름관객을 동원했다.

올해 DIMF는 공식초청작 9편과 창작지원작 6편, 본선 진출 대학생 참가작품 6편, 자유참가작 2편 등 총 23개의 작품이 공연됐다. 전체 예산은 약 15억 원. 지난 2010년의 30억원에 비해 절반 가량이 줄었지만 관객은 오히려 7만5000명에서 9만8000여 명으로 20% 늘었다. 이는 지난 21일 폐막한 브랜드 공연 ‘페스티벌 오! 광주’(6월23일~7월21일)의 총 관객 9500명 보다 10배나 많은 수치다.

DIMF가 창설된 지난 2006년 광주에서도 공연축제가 첫선을 보였다. ‘페스티벌 오! 광주’

하지만 푸른연극마을의 ‘사평역에서’, 타악 그룹 일수의 ‘인수화풍’, 극단 신명의 ‘연젠가 불날에’ 등 지역단체들의 작품은 ‘작지만 강한 감동’을 주었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이번 ‘페스티벌 오! 광주’의 폐막무대를 장식했던 광주문화재단의 야심작 ‘님을 위한 행진곡-자스민 광주’는 때론 역동적인 춤이 그 어떤 뛰어난 노래나 음악보다 관객을 뒤흔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무대장치와 안무 등 몇몇 장면은 관객들의 물음을 방해했지만 전체적으로 DIMF의 ‘마이 스캐어리 걸’이나 ‘투란도트’처럼 매년 업그레이드된 무대를 꾸민다면 광주의 대표브랜드 공연으로 충분하다. 신작발굴도 좋지만 ‘상품성’ 있는 기존작품들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경쟁력을 키울 필요가 있는 것이다.

공연 프로듀서 박명성(신시컴퍼니 대표)씨는 “페스티벌 오! 광주’가 길러온 콘텐츠가 되기 위해선 1000석 이상의 전용 공연장 건립과 공연인구의 저변확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면서 “그런 점에서 지난 2002년부터 대구시와 DIMF 조직위원회가 공연예술의 도시를 표방하며 정책적으로 공연인프라 확충에 역점을 둔 점은 광주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구=박진현 문화선임기자 jhpark@kwangju.co.kr

문화수도 광주
광주일보와 함께

■ 광주문화재단 박선정 사무처장

“광주産’ 작품 글로벌 브랜드 가능성 확인

이야기 입히고 시민과 호흡 경쟁력 높일 것”

“올해 ‘페스티벌 오! 광주’의 가장 큰 수확은 ‘메이드 인 광주’ 작품들도 국내외 무대에서 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입니다.”

지난 20일 ‘님을 위한 행진곡’의 초연무대가 끝나자 광주문화재단의 박선정 사무처장은 공연장 로비에서 관객들의 표정을 읽느라 바빴다. 5월 항쟁을 강렬한 춤으로 풀어낸 새로운 시도를 과연 관객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뻔한 스토리와 연출”을 우려하는 예상을 깨고 여기저기서 긍정적인

인 반응이 이어지자 자신감을 얻었다. 실제로 올해는 ‘새로운과 과거의 축제’라고 할 정도로 지역단체의 창작공연들은 구태를 깨려는 열정이 돋보였다. 박 사무처장은 “그중에서도 우리 고유인 신명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극대화한 그룹 일수의 ‘인수화풍’과 댄스퍼포먼스의 힘을 보여준 ‘님을 위한 행진곡’은 축제의 하이라이트였다”고 말했다.

‘페스티벌 오! 광주’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을 의식한 듯 박 사무처장은 “1억 8000만원



에 불과한 예산으로 퀄리티 높은 외부의 브랜드 공연을 끌어오는 데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이라면서 “지역성을 살리는 다양한 스토리텔링 작업과 공연 인프라 활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박 사무처장은 시민들의 문화지수를 높이는 교육프로그램과 전용공연장 건립 추진, 공연기획사와의 매개역할에도 역점을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진현 문화선임기자 jhpark@kwangju.co.kr

호남제일 음식문화를 선도하는 아리랑하우스의 여름특선메뉴

삼계탕 전복삼계탕 굴비정식



● 평일 주중 점심특선 오찬정식: 15,000원 ● 아리랑하우스 한정식: 25,000원~

역시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입니다!

건강한 우리 음식으로 즐거운 만남을~

중·소 규모의 세미나도 아리랑하우스의 한정식으로 더욱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금수장호텔·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 - 2111 (계림동 출장소 건너편)



착한 가격의 편안한 객실, 세미나, 회식 등 각종 모임을 위한 연회장, 접객실, 편리한 주차, 성공적인 만남을 위한 커피숍